“본전만 찾았으면” “매수기회”…암호화폐 폭락에 대혼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한달 새 30~40% 하락
머스크의 ‘입’, 중국발 규제 강화에 시장 혼란
2030 등 암호화폐 신규 투자자 ‘패닉’도 가중
“바닥보이면 재투자” “하루종일 시세만 봐요”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암호화폐 시장이 잇단 악재에 주저앉으면서 대상승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한달 월급만으로는 내 집 한 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투자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연이어 폭락장에 반 토막 난 수익률은 2030세대의 좌절을 가중시키는 모습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앞으로 더 폭락할 수 있다는 불안함과 함께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는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

22일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최근 고점 대비 40% 가까이 폭락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가격도 지난 12일 고점(535만8000원)보다 36% 이상 하락한 상태다. 도지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이용한 테슬라 차량 결제 중단을 발표하며 시장이 혼동에 빠진 데 이어 중국 당국의 거래 규제 강화 방침이 낙폭을 더 키우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투자 시장에 막 뛰어든 2030 청년층 등 신규 투자자들의 패닉도 가중되고 있다.

취업난과 집값 상승으로 좌절감을 느낀 청년들에게 암호화폐는 일확천금을 안겨줄 유일한 희망의 수단으로 여겨졌다.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빚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나섰지만 이어진 폭락장에 이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20대 서모씨는 “암호화폐는 마치 청년층에게 작은 희망의 고문과 같다는 느낌이 든다”며 “부동산 집값은 폭등하고 있고 월세를 내기도 급급한 상황인데 직장인 월급만으로는 희망이 없으니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투자 방식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장모(29)씨는 지난 2월 빚내서 3000만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처음 투자했을 당시엔 원금의 5배 정도 오르면서 재미를 봤지만 최근 폭락장으로 30% 손실을 봤다고 한다.

장씨는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는데 수익률이 좋아 점점 더 큰 돈을 넣게 됐다”며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는 마약같다”고 떠올렸다.

이어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암호화폐 시세만 보게 된다”며 “일확천금을 바라고 시작했던 건데 지금은 본전만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30대 직장인 정모씨는 “한때 50%를 넘기던 수익률이 10%로 폭삭 내려앉았다”며 “다행히 큰돈을 넣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더 돈을 넣기에는 무서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일시적으로 하락한 후 다시 반등하는 패턴을 보였던 만큼 “저가 매수 기회”라며 사들이는 투자자들이 있었다.

지금 상황에서 암호화폐에 기대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인식에 이번 하락장을 견딜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5월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든 직장인 최모(29)씨는 처음 100만원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투자금을 늘리면서 약 700만원을 투자했다. 최근 폭락장으로 25%가량 손실을 봤다고 한다.

최씨는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든 이유로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싶었다”며 “특히 서울 집값은 비싸서 구매 엄두도 안나고 수도권도 마찬가지였다. 내 월급으로 언제 결혼해 집을 마련할지 막막했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중독성이 강한 마약같다. 계속 시세 현황판만 보게 된다”며 “바닥이 보이면 다시 투자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최모(26)씨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갈 것이라고 보면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본다”며 “떨어질 때마다 넣어서 계속 투자금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남에 거주하는 정모(31)씨는 “암호화폐 시장이 특정 국가의 규제 방침이나 유명인의 말로 출렁이지만 조금 더 분위기가 무르익고 정착되면 앞으로 새로운 화폐 시장이 될 것은 당연하기에 믿고 기다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투자 커뮤니티에서도 “오히려 지금이 투자 기회다”, “지금이라도 먼저 판 사람이 승자다”, “이런 도박만이 희망인 나라가 된건가”, “위험한줄 알고 들어갔으면 그 손실도 감당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물놀이하는 어린이들 초여름 날씨를 보인 2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대공원 무지개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장 선거 무자격 투표 의혹”…낙선자 이의제기

이강근·전갑수 후보…보궐선거·당선무효 이의 제기
“당선자 사전 선거운동·체육회 직원 선거개입” 주장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 낙선자들이 당선자 측의 “부정 선거 의혹이 있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23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이강근·전갑수 후보 측은 당선자 측이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무자격자가 투표에 참여했다며 ‘회장선거·당선 무효 이의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어 10일 이내 조사 결과를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보 측에 통보한다.

광주시체육회장 선거 규정에는 “출마자들은 선거 이후 5일(휴일 제외)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전 후보 측은 지난 13일 시체육회장 보궐선거를 통해 선임된 이상동 당선자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자는 대의원 274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132표를 얻어 110표를 획득한 전 후보와 32표에 그친 이강근 후보를 물리치고 민선 2기 회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오는 2023년까지 2년이다.

후보들은 “보궐선거에 선거인 자격이 없는 대의원 46명이 참여했다”며 “이들은 대한체육회 동호인선수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은 대의원들로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 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위와 2위의 표차는 22표이며 선거권이 없는 대의원은 46명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또 “당선자 측의 사전 선거 운동과 시체육회 직원이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후보들은 “이 당선인은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4월30일 광산구의 모 식당에서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으며 선거 운동 기간에도 직무가 정지된 직함이 표기된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고 전했다. 또 “시체육회 직원은 후보 등록 전에 사퇴한 전임 회장의 공약자료를 전달한 뒤 반환을 요구했었으며 또 다른 직원도 투표당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체육회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선관위가 후보들의 이의제기 부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하게 살펴 볼 것이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